

“요리·스마트폰 배우세요” 광주시, 어르신 일상돌봄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2월까지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상돌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보조금 공모 방식이 아닌 광주시가 직접 기획해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자립적 생활을 위한 어르신 요리교실 ‘시니어 살림남 프로젝트-나는 셰프다’와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효도폰? 아니 스마트폰!’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11일 공모에 참여한 11개 기관을 심사해 최종 4곳을 선정,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개 복지기관 5000만원 지원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3개 복지관서 요리교실... 경로당 100곳선 디지털 역량강화

‘시니어 살림남 프로젝트-나는 셰프다’ 사업은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반찬 만들기 등을 직접 배워보는 프로젝트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광주공영노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매월 요리수업 등을 진행한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5월21일까지 15명을 모집해 요리교실, 요리경연대회를 운영한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5월15일까지 20명을 모집해 건강식단교실, 저속노화 챌린지, 한끼나눔 챌린지를 진행한다. 광주공영노인복지관은 5월22일까지 20명을 모집해 요리, 영양관리 교육, 정보

기 실습 등을 실시한다.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효도폰? 아니 스마트폰!’ 사업은 지역 경로당을 관리·지원하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오는 5월 16일까지 경로당 100개소를 선정해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결제, G페스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과 교육 내용은 각 기관별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수행기관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상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모집대상: 지역주민 65세 이상 독거 남성
모집인원: 독거 남성 15명
신청기간: 2025. 5. 12. - 모집시까지
신청방법: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문의 및 방문
문의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T. 062-266-3851



‘전남 블루위케이션’ 알뜰하게 즐기세요

5월 방문의 달 맞아 여수·순천·나주 등 8개 시군서 반값 할인

전라남도도는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섬·해양·산림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기는 전남 블루위케이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문의 달 특별 할인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위케이션은 2023년 여수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순천, 나주, 고흥, 함평, 해남, 진도, 구례 등 8개 시군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 위케이션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은 여수의 섬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새로운 곳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상게이볼, 여수예술랜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순천에선 순천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한 정원 위케이션이 마련됐으며,

글램핑 타입의 ‘캐빈하우스’와 한옥 스테이 ‘순천만에코촌’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개울길 마실, 정원해설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나주에선 나주향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고즈넉한 옛집을 위케이션 공간으로 꾸몄다. 나주읍성 전통인력거 로컬트립을 함께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흥에선 마리안노와 마가렛 기념관인 나눔연수원을 중심으로 위케이션을 운영하며, 소록도의 봉사 정신을 기리고 고흥 해안가 마을의 여유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례에선 유니크베뉴로 지정된 쌍산재에서 한옥체험과 함께 지리산 주변의 리조트, 테라지리산호텔 등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승원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80년 5월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잇따라 마련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 공직자들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선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5월 영령을 추모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의 총칼에 맞선 광주 시민의 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김병내 구청장을 포함해 간부 공무원 63명은 추모탑 헌화 및 분향을 하면서 나

광주 남구 지역사회, ‘80년 5월 정신’ 품는다

구청 공직자들 14일 5·18민주묘지 참배

눔과 헌신의 광주 정신을 발판으로 더 나은 공동체 건설을 다짐할 계획이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기 위해 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1묘역과 2묘역, 구 묘지를 잇달아 찾아 추모한 뒤 묘지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를 갖는다.

관내 주민들은 오는 23일 오후 5시부터 효천역 광장 일원에서 ‘송암·효천 5·18 희생 영령 추모 문화제’를 개최한다.

80년 5월 항쟁 과정에서 송암동 및 효천역 일원에서 숨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자리로,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세대와 80년 5월을 겪지 않은 미래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광주 공동체의 삶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는다. /임채일 기자

문화제 주제가 ‘기억을 담다, 삶을 잇다’인 만큼 이날 추모 무대에서는 송암동 국악교실 프로그램 참가 주민들의 공연을 비롯해 창작 무용과 통기타 연주, 성악, 민속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행사장 주변 부스에서는 사진으로 만나는 5월 이야기와 주먹밥 나누기 등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획을 그은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기념하고, 빛고을 광주의 정신인 민주와 평화, 인권 가치를 계승·발전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서구는 1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보고회’를 열고 21개 협업 부서별 재난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과 강수량이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대응에 중점을

서구, 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대비 총력

각종 기상 상황에 선제적 대응,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가동

두고 대책을 추진한다.

서구는 독거노인, 노인 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6시간 이상 활동 미감지나 장시간 외출 시에는 안전 확인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275개소를 운영하며 냉방비 지원과 노후 냉방기 교체도 추진한다. 폭염이 심한 시기에는 쉼터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무더운 오후 야외작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냉 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 저감시설로는 그늘막과 쿨링포그의 사전점검을 마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쓴다. 쿨링포그 및 살수차도 확대 운영하며 공공체육시설과 사방댐, 금강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및 보완도 실시한다. /박석우 기자

북구,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종합 추진계획 수립

올 여름철 자연 재난(폭우, 태풍 등) 대비 위한 계획 마련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3일 북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대규모 여름철 재난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명보호 최우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4개 방향 7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기상 상황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13개 관련 부서를 실무반으로 편성하고 상황별 임무 부여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 AI 및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침수 취약지역 64개소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 상황 예측 및 시·공간 재난 문자를 발송 및 소관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초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힘든 재난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전송하고 이후 피해 규모 조사,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드론 관제시스템도 운영된다.

북구는 앞서 지난 3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해 급경사지, 아파트 옹벽, 산사태 취약지역 등 88개소를 지정하고 사전 점검을 추진했으며 이중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0개소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했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특별법 제정 로드맵은 탄핵과 대선 이슈로 자연스럽게 순연될 전망이다. 전체 11단계(의무 절차는 7단계) 중 법안 발의→국회 상임위·행안부 건의→행안위 상정·회부→국회·도의회·도민 공론회→관계부처 특례 수용 건의까지는 마쳤고, 행안위 주관 입법 공청회 단계에서 법칙선 상태다. 전례에 비춰 보면 입법 취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공청회→도의회 의견 제출→행안위 통과→법사위 통과를 거쳐 특별법 제정과 특자도 출범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낸다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첫 개각과 인사 청문회 등을 거쳐 행정부와 입법부가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2~3개월 가량 필요해 연내 보다는 내년에 법 제정과 전라남 특자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 최다선(5선)인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법안은 발의·상정만이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되어야 한다”며 “IMF 빛을 갚느라 고항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평생 후회하시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국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전라남 특자도 설치의 전남 상황에 맞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효과적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라며 “전라남특자도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염선호 기자

